

국가통계조사의 과거 · 현재 · 미래

김민경¹⁾

1. 머리말

국가통계(Official Statistics)는 국가가 국민생활과 관련된 인구, 사회, 경제 등 각종 현상을 파악하여 작성한 통계이다.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그 수단으로 이용되는 통계조사를 국가통계조사라고 할 수 있다. 국가통계조사는 그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통계조사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변모를 거듭하였으며, 그러한 변화들이 쌓여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지난 40 여 년 동안 국가 주도적 개발과정에서 국가통계의 작성목적은 주로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가정책의 방향, 경제·사회의 발전, 통계학 및 과학기술의 발전, 조사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통계수요도 변화하여왔고 이에 따라 통계작성내용이나, 조사방법, 통계제공수단 등도 크게 변화하여 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통계는 공공재(公共財)로서 그 작성은 국가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라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최근 민간부문의 자율과 경쟁이 존중될수록 정보의 핵심인 국가통계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하겠다.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초통계자료 작성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기획원에 통계국을 설치하였다. 이는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나라 국가통계역사에서 큰 전환기로 간주될 수 있다. 그 이래 통계는 국가 주도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국가통계 발전은 동시에 민간부문에서의 통계 발전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여왔다. 국가통계는 민간부문에서의 통계뿐만 아니라 관련된 통계학, 조사방법, 자료처리 기법 등과 상호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발전하여 왔다.

21세기는 과거와 달리 정보가 사회전반을 지배하게 되는 이른바 정보화시대로서 그 만큼 통계의 기능 내지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국가통계가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합류하기 위해서는 국가통계는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지향성은 역사성의 바탕을 전제로 한다. 환언하면, 국가통계의 과거와 현재를 해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년은 현대적인 국가통계기관의 효시인 통계국(경제기획원)이 설치된 이래 40년이 되는 해로 이러한 논의는 시기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통계조사의 발전과정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작성주체, 통계수요, 조사환경 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1)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2. 국가통계조사에 관한 환경 변화와 발전

정부수립 당시 통계조사기관으로서 국가통계조직은 분산형제도로 출발하였다. 즉, 공보처 통계국(1955년 내무부로 이관), 농림부 조사통계과, 한국은행 3개 기관이 인구통계, 농업통계, 경제통계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한국은행은 일제시대부터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실시체제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데다가 정부의 재정부족으로 인해 경제통계를 계속 작성하였다. 정부의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수집은 주로 행정보고에 의지하였으며, 통계조사는 인구센서스²⁾가 유일하였다.

1961년 경제개발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기획원 설립과 함께 통계국³⁾을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으로 이관하였는데, 이는 국가통계조사 발전의 전환기가 되고 있다.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통계작성의 집중화가 시작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종 제도를 구축하였다. 즉, 한국은행에서 실시하던 소비자물가조사 및 지수, 도시가계조사 등을 통계국으로 이관하였다. 1962년에는 통계법을 제정하고 통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분산형제도하에서의 통계 조정 기능 수행을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통계작성기준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 등이 제정된 것도 이 시기였다.

통계조사방법에서도 초기의 전수조사 위주, 유의표본조사에서 탈피하여 확률표본조사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 전수조사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자료처리가 늦어 시의성이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표본조사는 저비용으로 단기적인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예로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1960년 인구센서스 조사구를 표본틀로 사용하여 확률표본이론에 기초하여 1963년 개발하였고, 유의표본으로 조사하였던 도시가계조사, 농가경제조사 등도 확률표본으로 전환하였다. 사업체조사에서도 산업생산지수의 기초물량자료를 수집하는 광공업동태조사에 확률표본기법을 도입하였다. 표본조사 기법은 1966년 인구센서스에도 도입된 이래 최근 센서스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구표본에서 1969년 이래 다목적표본기법을 도입하여 하나의 표본에서 여러 가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방법은 각 조사를 연계함으로써 가구 및 인구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조사원 규모를 줄여 조사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이질적 조사를 단일표본에서 수행함으로써 조사별로 요구되는 정도(精度)의 확보가 어려우며, 융통성 있는 조사원 제도 개선 기회의 상실, 조사원 정원 증가의 한계 등 문제를 야기하였다.

1960년대 통계작성내용은 인구와 경제에 관한 일부 내용에 국한되었으며 총규모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통계조사의 설계는 대부분 외국, 특히 일본의 사례에 많이 의존하였다. 인구센서스의 경우 미국정부의 통계고문단, 미국 동서문화센터(EWC) 등의 자문, 협조로 비교적 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1970~80년대는 국가통계가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통계작성 기능이 강화된 시기였다. 정부통계일원화조치에 의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에 분산되었던 광공업통계조사, 산업생산·출하·재고지수,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등 각종 산업통계조사가 조사통계국으로 이관되는 등 국가통계의 집중화가 계속 이루어졌다. 국가통계조직으로서 조사통계국은 통계조사의 확대에 따라 그 조직이 점차 확대되었다. 특히, 지방사무소를 설치하여 본부에서 관리하던 조사원을 지역별로 관리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를 강화하

2) 근대적 의미의 인구센서스는 일제시대인 1925년에 처음 실시된 후 5년 주기로 실시되었으며, 정부수립 후는 1949년 「총인구조사」 명칭으로 실시됨. 이후 5년주기로 「5」, 「0」 자 연도에 실시하여왔으며 1960년 조사부터 주택부문을 병행조사함.

3) 이는 1963년 조사통계국으로 명칭이 변경됨.

여 비표본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농림부도 조사통계과를 국(局)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방사무소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조사실시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노동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에 과(課) 단위 통계조직이 설치되었다. 이 시기에 공공기관의 통계활동도 활성화되었다⁴⁾.

통계작성 분야가 크게 증가되었으며 또한 다양화되어 산업별 및 가구 단위의 구조통계, 동태통계의 정기적인 작성체계가 갖추어졌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국가정책이 경제개발계획에 중점을 둔에 따라 통계작성도 총량통계, 물량통계, 생산통계, 제조업분야통계 등 경제분야 위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고도성장과정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 통계의 수요가 증대되자, 1970년대 후반부터 국가통계도 사회, 보건, 복지 등 비경제 분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그 예로 1979년 조사통계국은 한국개발연구원과 협력하여 사회지표체계⁵⁾를 개발한 이래 계속 수록지표수를 확대하여 왔으며, 주관적 지표작성을 위해 사회통계조사⁶⁾도 개발하였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는 국민건강, 가족, 복지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개발, 실시하여 왔다. 한편, 경기예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한국생산성본부,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경기전망조사, 설비투자동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은행에서 경기예고지표(WI)를 1972년 개발하여 1984년 5월까지 작성하였다. 조사통계국은 제2차 석유파동 후 경기의 속도와 국면을 나타내주는 경기종합지수(CI)를 1981년 개발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주 경기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 개발전략이 경제성장위주에서 성장과 형평을 추구하는 종합적 사회개발과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수립관련 지역통계 수요가 크게 증대되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수조사를 통해 수집된 통계는 지역단위로 생산하였으며, 표본조사의 경우에도 그 규모를 확대하여 시·도별 통계를 작성하였다⁷⁾. 인구추계, 지역총생산(GRDP)추계 등 일부 공공통계도 지역별로 작성하였다. 한편, 국민경제에서 비중이 증대하는 도소매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제활동,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1960년대 이래 실시해온 5년 주기의 도소매업 센서스, 월별 도소매업 판매액지수 외에 연간통계조사로 도소매업통계조사와 서비스업통계조사를 1988년 표본조사로 개발하여 산업관련통계의 연간조사통계범위를 확대하였다.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제6차 계획(1987-1991)에서 통계부문이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편성, 추진되었다. 정부는 통계부문 정책방향을 통계의 질적 개선과 개발, 통계정보관리의 개선과 이용의 확산, 통계작성 기능의 강화에 두고 통계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각종 통계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통계청(1990년 12월 27일)으로 격상되어 조직, 체제, 기능면에서 국가통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가통계조사실시 및 작성이 여러 기관에서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⁸⁾, 통계청, 노동부, 농림부를 제외한 대부분 기관에서는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행정보고 또는 산하 기관에 의한 통계작성을 수행할 뿐이므로 통계청의 탄생은 매우 의의가 있다 하겠다.

1990년대에 들어 지방자치제의 실시, 서비스산업의 증대, 컴퓨터 보급의 보편화 등과 함께 국민의 생활과 의식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통계수요도 보다 다양화해졌다. 더구나 경제의 개방화, 국

4)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전경련, 대한상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국가통계 조사를 실시하였음.

5) 1979년 개발 시 9개 부문 129개 지표체계에서 1995년 2차 개편 시 13개 부문 553개 지표체계로 확대됨.

6) 동 조사를 통하여 매년 소비, 고용, 교육, 보건, 주택, 환경, 문화, 여가 등 주제를 달리하며 국민의 주관적 의식, 사회적 관심사 등을 파악하고 있음.

7) 경제활동인구조사, 농가경제조사, 산업생산·출하·재고 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포함됨.

8) 통계청이 일반목적의 국가 기본통계를 생산하며, 2001년 10월 1일 현재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28개의 중앙정부, 37개의 지방자치단체, 71개의 공공기관에서 통계법에 의한 승인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제화,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면서 우리나라 통계정보에 대한 외국, 국제기구의 수요도 급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ILO, OECD 등 회원국으로서 통계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작성대상 통계종류, 통계작성기준·공표기준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통계청은 이와 같은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통계의 발전외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첫째, 통계청은 각종 통계조사의 기본이 되는 모집단 통계조사를 정비하고 수요에 대처하여 새로운 통계조사를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사업체통계조사를 5년 주기 조사에서 연간조사인 사업체기초통계조사로 전환하였으며, 전국 비농어가의 가계소득·지출 및 저축·부채사항을 조사하는 가구소비실태조사, 국민의 하루24시간 활용 상태와 무급가사노동을 파악하는 생활시간조사, 서비스업의 단기동향을 파악하는 서비스업 활동지수, 국민의 정보격차를 분석할 수 있는 정보화실태조사, 정보산업의 경제활동과 경영실태를 파악하는 정보산업통계조사 등을 개발하였다.

둘째, 조사방법 면에서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였다. 통계청은 면접조사시 노트북을 이용하여 질문하면서 응답내용을 즉시 입력하는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방식을 도입하였다. 이 방식은 입력시간을 단축하고 코딩오류를 줄일 수 있어 자료의 정도와 이용의 신속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조사항목 확대도 가능케 하였다. 동기법은 1998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적용된 이래 사회통계조사, 소비자전망조사 등 가구조사에 적용하고 있다. 인터넷조사방법은 통계조사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설문조사,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집 등에 활용하고 있다.

셋째, 조사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90년대에 들어 맞벌이 및 장기출타가구가 늘어나고 개인의 사생활보호의식이 커지면서 조사대상 접촉이 어렵고 불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계작성과정을 이해시키며, 그 중요성을 교육시키고 있다.

넷째, 자료처리 면에서 최신 컴퓨터 및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자료의 정도와 제공의 신속성을 개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통계조사의 자료처리에 컴퓨터가 도입된 것은 1966년 인구센서스의 집계를 위해 IBM 1401을 도입하면서부터이다. 그 후 자료처리는 본부에서 집중식으로 수행되었으나, 80년대 말부터 월별통계조사에 지방사무소현지에서 조사표내용을 입력·심사하는 분산처리방법을 도입하였다. 분산자료처리방법은 대규모 센서스에도 도입되었는데, 1990 및 1995 인구주택총조사(OMR입력)에서 심사 및 부호기입 그리고 2000년 총조사에서는 심사 및 부호기입뿐만 아니라 입력에도 적용하여 자료처리시간을 단축시켰다. 그동안 조사표의 내용심사(editing)와 집계(tabulation)에만 컴퓨터를 활용하였으나 부호기입(coding)에도 활용하였다. 즉, 산업·직업분류자동부여시스템을 개발하여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적용함으로써 분류의 정확도를 크게 높였다.

다섯째, 지역별통계 생산을 증대하였다. 조사통계의 경우 기존의 종류, 범위가 크게 확대되지 않았으나, 가공통계의 경우 지역별 총생산(GRDP)에 추가하여 지역별 소비, 지역간 이·출입, 지역별 자본형성을 볼 수 있는 지역지출계정을 개발하였다. 각종 지역통계를 취합하여 편집한 간행물(시·군·구 주요통계지표, 지역별 경제동향)도 발간하였다.

여섯째, 자료제공 면에서 전문이용자의 심층분석을 위해 모든 통계조사의 원시자료(raw data)를 제공하였다. 단, 원시자료 제공 시 응답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개인이나 개별 사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장치를 하였다.

<표 1> 작성방법별 정부 승인통계 현황

(단위:종)

연도	승인통계수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1975	282	182	99	1
1980	448	247	193	8
1985	355	185	162	8
1990	360	181	169	10
1995	373	180	165	28
2000	406	203	162	41
2001	422	214	164	44

주: · 각 연도말 기준임. 2001년은 10월1일 기준임.

· 1981,1983년 승인통계정비로 승인통계 수 축소(1980년 448종→1983년 358종)

3. 국가통계조사의 내일

컴퓨터와 통신의 발달은 국민생활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 지식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가 가속될수록 국가통계의 수요와 생산측면 모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통계수요를 보면, 세부적이고 소지역별 통계,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통계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경제통계에서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질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산업에 대한 통계 수요가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은 업종이 워낙 다양한데다 소규모업체가 많고 업종 및 업체의 변동도 심하기 때문에 통계조사의 실시에 어려움이 많다. 현재 서비스업통계조사(연간)와 서비스업 활동지수(월별)를 표본조사로 작성하고 있으나 표본규모상 세부업종에 대한 자료의 생산은 한계가 있다. 향후 특정서비스업 통계조사의 개발, 기존 산업통계를 이용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설정 등이 필요하다. 인구 고령화, 이혼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 및 가족의 변화, 환경문제의 심각화 등으로 가족, 복지, 보건, 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통계의 요구가 크게 증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통계의 경우 우리나라는 금년에야 환경산업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환경에 관한 다양한 통계 및 환경계정 등을 작성하기 위한 환경통계전문가 및 전문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통계생산측면에서 우선 통계조사환경을 보면, 국민의 개인정보노출에 대한 불안감 증가와 조사대상자와의 접촉 어려움 등으로 조사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모든 통계수요를 조사통계만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어렵다.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행정통계는 국민의 신고, 행정처리의 결과로 작성된 것으로 국민의 추가적인 응답부담이나 예산의 부담이 없고 전수조사의 성격을 갖고 있어 소지역별 통계의 작성도 가능하다. 사실 현재 통계법에 의한 승인통계의 40%정도가 보고통계이다. 또한 통계법에 의한 승인통계가 아닌 더 많은 보고자료가 행정에 직접 활용되고 있다. 몇 년 전 한일 기업협정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한 근해어업어획량 관련통계는 대부분 승인통계밖에 있는 행정보고자료이다.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환경, 보건, 복지, 정보, 문화, 소득분배 등의 통계도 상당부분 행정자료의 집계·분석을 통해 작성될 수 있는 통계이다.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각 업무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시스템구축 시에는 해당통계 작성뿐만 아니라 시스템간에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일부 유럽국가와 같이 등록센서스(register based census)실시는 물론 관련통계를 작성하는데 수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초로 등록센서스를 실시한 덴마크와 같이 통계청이 등록시스템구축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보유자료를 통계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라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지역별 통계작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표본규모의 확대로는 소지역별 통계의 작성은 한계가 있어 선진국에서와 같이 통계조사 결과와 행정자료를 보조자료로 활용하는 추정기법(small area estimation)을 도입하기 위해서도 정도 높은 행정통계의 작성은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신고자료의 불완전성, 부정확성문제가 크기 때문에 기초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각 기관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통계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통계수요를 모두 채워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지역통계의 직접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사 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

조사환경의 악화로 통계조사의 경우에도 전수조사의 실시는 점차 어려워 질 것이며 표본조사로 대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응답자에게 응답부담을 주고 있는 고정 표본은 연동표본(rotation sampling)으로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다. 아울러 자료요구가 세분화 됨에 따라 세부분류별 특성을 반영하는 추정기법, 무응답률이 높아질 경우 이에 대한 추정방법 등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자료에 대한 시의성 확보를 위해 컴퓨터에 의한 통계조사는 더욱 확산 될 것이다. 통계청은 CAPI방식을 2002년부터 소비자물가조사 등 6개 조사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조사대상 사업체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인 CASI(computer assisted self interview)방식을 매월 생산·출하·재고 실적을 조사하는 광공업동태조사에 2002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법은 조사원을 배제시킬 수 있어 비표본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응답내용의 오류를 프로그램에 의해 입력과 동시에 식별, 처리함으로써 자료처리시간 단축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컴퓨터의 다양한 입력장치, 출력장치, 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컴퓨터를 이용한 통계조사는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여진다.

4. 결 언

통계 이용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연구소, 학계, 개인, 국제기구 등으로 다양해졌다.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발전은 국가통계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국가통계의 객관성, 정확성, 시의성, 공개성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 질 것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통계수요, 조사환경의 변화, 새로운 기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가통계작성기관의 조직 및 인력 그리고 위상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통계조정기능의 수행기관을 국가통계위원회(가칭)와 같은 의결기관으로 격상하고 각 기관의 통계조직을 확대하거나 중앙통계기관의 조직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여 통계조사의 집중화, 전문화를 해야 한다.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가 주요 선진국의 국가통계를 평가하여 그 순위를 발표한 결과(1991.9, 1993. 9)를 보면,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은 집중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작성에 있어서 집중형제도가 분산형제도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통계업무의 효율화, 통계전문가의 육성, 한정된 자원에서 우선순위의 결정, 합리적 자원배분에의 대응은 집중형에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 분산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각 부처마다 우리나라 통계청보다 큰 국(局)수준이상의 통계조직, 전문인력을 보유하여 통계업무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꾀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력과 조직을 기반으로 연구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또한 새로운 통계수요 및 조사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기법에 관해 부단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미국, 캐나다 등의 통계선진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구기능을 활발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거나 고도의 이론이 필요한 연구는 대학, 외부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연구인력 및 조직이 취약한 실정에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중앙통계기관내에 부설연구소의 설립이 절실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학계와 협력하여 우선 순위에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학계 차원에서는 국가통계조사의 수준을 제고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2010년 인구주택센서스는 지금까지의 양상과는 달리 전수조사(short form)만 실시하며 표본조사(long form)로 실시하던 내용은 매년 표본조사(rolling census)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센서스국(Census Bureau)은 물론 학계, 연구소 등의 우수한 통계학자들이 참가하여 표본조사 기법, 추정기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참고문헌

- [1] 경제기획원(1986),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통계부문계획」
- [2] 김민경(2000), 「인구센서스의 이해」, 글로벌
- [3] 신 윤(1977), 우리나라의 농업통계현황, 「통계, 제3권 제1,2호, 102~116쪽, 대한통계협회
- [4] 통계청(1992), 「한국통계발전사 I, II」
- [5] 통계청(1999), 「통계정보화 종합추진계획」 (내부자료)
- [6] 통계청(2000), 「전자조사표 확대도입 기본계획」 (내부자료)
- [7] 통계청(2001), 「통계목록」 (www.nso.go.kr)
- [8] 한국은행(1970), 「산업통계조사 종합보고」
- [9] 한국은행(1995), 「한국은행의 통계」